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 韓龍雲의 「님의 沈默」 序詩 分析 —

趙 俶 嬉

## 目 次

1. 서 론
2. 퍼스나의 욕망과 기능탐색
3. 시적 플롯과 미적 변형원리
4. 주제와 상상력의 세계
5. 결 론

## 1. 서 론

〈님의 沈默〉은 시집 「님의 沈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序詩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집 「님의 沈默」을 연작시로 이해할 때 가능한 표현이다. 지금까지 「님의 沈默」의 연작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로 윤재근, 김재홍의 연구가 두드러진다. 특히 윤재근은 시집 전편을 하나의 유기적인 총체구조로 보고 詩的人物이 어떻게 이별과 만남이라는 사건을 거쳐 사랑의 시적 주제에 도달하는가를 7단계의 플롯 체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sup>1)</sup> 또 김재홍은 서시 <님의 沈默>이 시집 전체의 구성과 주제를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sup>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은 시적 플롯(Poetic plot)의 개념을 분석의 원리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시적 플롯이란 시집 전편을 하나의 연작시로 보고 그 전체구조를 인과성과 논리성에 의해 설명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한 편의 시를 유기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탐구하는 미적 장치를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문학작품은 자기 자신의 독특한 문학적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이야기는 소재로서의 이야기를 다양한 예술적 힘에 의하여 재창조된 예술적 이야기로서 어떤 미적질서의 통제를 받기 마련이다. 여기서 미적질서란 흔히 플롯의 기능에 의해 창조되기 마련인데, 이때 플롯은 ‘소재로서의 1차이야기를 예술적인 2차이야기로 변형하는 모든 원리와 방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sup>3)</sup>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님의 沈默」의 88편의 시가 하나의 유기적인 플롯 구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님의 沈默」의 전체구조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집 첫머리에 실려있는 <님의 沈默>은 시집 전편의 의미와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서시로서 소설인 경우 도 입액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87편의 시는 서시에서 상징적으로 암시된 내부이야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시는 시적 플롯의 기능 중 액자의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주로 전체 시편의 주제의식이나 사상성을 미리 암시하기 위한 미적장치라고 할 수 있다.

1) 尹在根, 萬海詩 「님의 沈默」 研究 (서울: 民族文化社, 1985), pp. 157~348.

2) 金載弘, 韓龍雲文學研究 (서울: 一志社, 1982), pp. 73~107.

<님의 沈默>은 시집 「님의 沈默」의 전체적 성격과 원리가 암축되어 있는 序詩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의 논의과정에서 <님의 沈默>을 序詩라고 명명하고서 분석하고자 한다.

3) 安成洙,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研究 試論”(文學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1989), p. 8.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연작시의 전체구조 중에서 액자의 기능을 담당해내는 <님의 沈默>의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여 내부 시편의 상징성을 탐색해내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서시 <님의 沈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 이루어졌다.<sup>4)</sup> 그러나 필자는 구조주의와 해석학적 방법을 원용하면서 작품에 접근하려 한다. 따라서 언어분석을 통하여 시의 구조를 해명하고, 시적 플롯의 미적 가치를 탐구하여 작품 해석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서시 <님의 沈默>이 「님의 沈默」 전편의 의미와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시 한 편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2. 퍼스나<sup>5)</sup>의 욕망과 기능탐색

- 4) 蘇斗永, “構造文體論의 方法—韓龍雲의 「님의 沈默」 分析試論—,” 언어학, 제1호 (한국언어학회, 1976. 4), pp. 99~129.  
조동일, “김소월·이상화·한용운의 님,” 우리문학과 만남 (서울: 弘盛社, 1978), pp. 243~274.  
金烈圭, “<님의 沈默>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우리의 傳統과 우리의 文學 (서울: 文藝出版社, 1987), pp. 226~238.  
宋孝燮, “「님의 沈默」의 構造—作品解釋의 循環論을 中心으로—,” 西江語文, 제1집 (西江語文學會, 1981. 6), pp. 87~108.  
朴喆熙, “韓龍雲의 「님의 沈默」—님의 의미망과 표현 意匠—,” 한국현대시 작품론, 金容稷·박철희 編 (서울: 문장사, 1981), pp. 113~128.  
윤호병, “<님의 침묵>의 해체적 독법—시어의 기능과 역할에 의한 텍스트의 재해석—,” 현대시사상, 이승훈 編 (서울: 고려원, 1988), pp. 93~106.
- 5) 金俊五, 詩論 (서울: 문장사, 1986), pp. 199~213.  
李明燮 編, 世界文學批評用語事典 (서울: 乙酉文化社, 1985), pp. 485~486.

원래 persona란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한다. 현대의 沒個性論의 詩觀은 <탈 persona>이란 용어으로써 시적 자아 곧 시의 일인칭 화자를 실제의 시인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실제의 시인과 구분된 퍼스나는 작품 속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고 특정한 효과에 이바지하도록 고안된 일종의 시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퍼스나’를 시적 화자 또는 시적 자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플롯의 미적기능과 작품구조 탐구를 위한 분석의 첫 단계는 최소 의미망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여 작품을 분절하는 일이다. 이때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최소 의미망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시 해석일 경우 최소 의미망의 영역은 詩語, 行, 聯 등의 다양한 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시 <님의 沈默>의 분석 과정에서 필자는 한 행을 최소 의미망의 영역으로 보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고자 한다. 이때 한 행 속에 포함된 의미는 그 행을 의미론적으로 수렴시키는 작은 단위의 主題素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서시는 10행으로 이루어졌으므로, 10개의 주제소가 이끄는 의미망의 형태로 분절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이제 분석의 다음 단계는 분절된 행을 중심으로 의미망의 핵심기능을 찾아내어 기술하는 일이다. 의미기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퍼스나의 욕망구조와 플롯의 기능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퍼스나의 욕망은 문학적 상상력의 기저에 자리하여 작품의 세계를 의미론적으로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 해석의 근간이 되고, 명명된 의미망의 핵심기능들은 작품의 의미구조와 플롯의 체계도를 뽑아내는 데 필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sup>6)</sup>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의미망의 기능탐색 작업에 들어가고자 한다. 행수를 표시하는 숫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삽입한 것이다.

1. 님은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 갓습니다
2. 푸른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숨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떨치고 갓습니다
3. 黃金의꽃가리 굿고빛나든 옛盟誓는 차디찬뉘몰이되야서 한숨의微風에 내려갓습니다
4. 날카로운 첫「키쓰」의追憶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뒤스거름쳐서 사러갓습니다
5. 나는 향기로운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얼굴에 눈머렸습니다
6. 사랑도 사랑의일이라 맛날때에 미리 떠날것을 염너하고경계하지 아니한

6) 安成洙, 前掲論文, pp. 12~14.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것은 아니지만 리별은 뜻밖과일이되고 놀란가슴은 새로운숨에 터집니다

7. 그러나 리별을 쓸데없는 눈물의源泉을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것인줄 아는까닭에 것잡을수없는 숨의힘을 옮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었습니다
8. 우리는 맛날때에 저날것을염너하는것과가티 저날때에 다시맛날것을 잊습니다
9. 아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10. 재꼭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는 님의沈默을 휩싸고돕니다

- 님의沈默 -<sup>7)</sup>

1행의 핵심적 기능은 떠남의 결과에 대한 탄식이다. '갓습니다'의 반복은 믿기지 않는 님의 떠남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려는 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별의 현실적 인식은 결국 '아아'라는 탄식을 동반하게 된다. '사랑하는 나의님'에서는 나와 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님과 나의 관계회복이 앞으로 서시의 욕망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는 암시가 나타난다. 이 의미망은 떠남의 결과와 님과 나의 관계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행은 님의 떠남의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동시에 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역투사하여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우선 '길'을 수식하고 있는 ㉠'푸른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숨을향하야난'과 ㉡'적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 시간의 경과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의 순환성을 나타낸다. '깨치고'가 어떤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감을 의미한다면 '길'은 폐쇄적 공간이라기보다 개방적 공간인 것이다. 여기서 길은 직선적인 不歸의 길이 아니라 순환적인 回歸의 길인 것이다. 그러기에 님이 떠나는 길은 님이 다시 돌아오는 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은 흔히 '좁은 문'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적은 길'이 고난이나 시련의 길임과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의 길임을 시사한다. 고

7) 韓龍雲, 님의 沈默, 再版 (서울: 漢城圖書株式會社, 1934), pp. 1~2.

통이나 시련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리게 되면서 이 시를 해결지향의 개방구조로 이끈다. 그런데 이 개방구조는 한 번의 문제해결로써 서시를 일회적으로 끝나게 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떠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는 속성으로 인하여 서시는 완결의 상태에 머물기보다는 처음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보여준다. 즉 근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면서 고통이나 시련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서시를 순환적으로 되풀이하며 읽게 되는 것이다.

님과 나를 자연과 동일시 할 때 님과 나는 자연의 순환성의 원리를 받게 된다. 그러한 순환성의 원리에 따르면 幸과 不幸,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에 있어서도 그 변화는 낮과 밤처럼 언제나 되풀이되는 것이다.<sup>8)</sup> 이에서 떠남은 필연적인 것이며 새로운 만남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만남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떠남의 필연성은 '참여'라는 시어의 기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여'는 4행의 '뒤스거름쳐서'의 기능과도 상통한다. 이러한 시어들로 미루어 보아 떠남의 상황은 어떤 필연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한계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떠남의 필연성은 엄격한 因果律의 지배에 의하여 다시 만남의 필연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떠남의 상황을 9행에서의 퍼스나는 역설적 차원으로 받아들여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습니다'라는 의지적 발화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미상은 대자연의 원칙이자 섭리에 의하여 또한 인과율에 의하여 떠남과 만남은 되풀이되기 마련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떠남은 '새로운숨음'에 잠기게 되고 만남은 '새希望'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3행은 만남의 상황이 이별의 상황으로 변하는 모습을 선명한 이미지의 대립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이는 生成에서 消滅의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고의 가치를 형상화한 '黃金의뿔'이 보잘것 없는 '차되찬되솨'

8) 李光豊, 現代小說의 原型的 研究 (서울: 集文堂, 1985), p. 209.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로 변하여 미약한 ‘한숨의微風’에 날아가버린다. 결국 形相에서 無相으로, 色에서 空으로 변하면서 存在의 無化에 이른 것이다. 자연의 理法에 따라 생성된 것은 존재의 무화라는 소멸의 단계를 거쳐 더욱 탄탄한 존재가 되듯이 만남은 이별을 통하여 더 굳고 빛나게 된다. 그러므로 존재의 무화는 한 존재의 종말이 아니라 실존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원리이자 과정인 것이다. 이별의 의미도 이러한 논리에 의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존을 위한 존재의 무화에 의해 님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것이며 그 떠남의 결과가 이 의미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행도 3행과 같이 만남의 상황이 떠남의 결과에 따라 이별의 상황으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결국 떠남의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는 있지만 그 떠남 이전의 상황도 제시하고 있다. ‘첫「키스」의追憶’은 님과의 만남의 추억이다. 즉 見性的의 眞理를 깨친 순간<sup>9)</sup>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날카로운’의 의미는 ‘나의 기억에 깊이 새겨져 즉 잊혀지지 않아 눈에 보이듯이 선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존재와의 만남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나의 운명까지 돌릴만한 것이었음’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님이라는 존재와의 만남이 것처럼 기억에 생생하고 강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떠남의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한 떠남의 결과가 이 의미망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4행까지는 님의 떠남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5행에 이르러서는 과거에 님과 같이 있었던 때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 님과 함께 있었던 때의 나는 사랑의 무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기에 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본질에 관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만남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님의 존재는 현재의 나에게 ‘항괴로운’, ‘뾰다른’ 존재로 부각되어 인식된다. 그러면서 님은 과연 내가 사랑하던 존재였음이 새삼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님은 말을 초월한 것이며 비가시적인 것이어서 그 존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얼굴(모습)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님이 떠

9) 宋 穉, 님의 沈默 全篇解說 (서울: 一潮閣, 1974), pp. 23~24.

나버린 후 그 존재는 감각적 이미지의 언어로 표현되면서 지금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사랑의 무지 상황 때에는 미처 님의 존재를 결실히 인식하지 못했고, 님의 부재 상태에서 오히려 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6행의 '맛날새에 미리 써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아니지만'에서는 퍼스나의 인식의 기초에 이미 만남과 떠남의 순환 원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남과 이별의 교체에 의하여 사랑의 뜻도 더욱 공고히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진실을 깨닫게 하는 동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견은 확신에 찬 믿음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퍼스나는 뜻밖의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이별의 충격과 슬픔의 힘이 크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슬픔의 정서는 절정에 달하게 되며 그 역동성은 '사랑의 자각'을 생성케 하는 動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행에서 6행까지는 슬픔의 정서가 주조를 이룬다. 이 슬픔의 정서는 시적 이미지의 울림과 증폭에 의하여 역동성을 준비하게 되고 그 역동성이 분출하면서 정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6행의 '놀란가슴은 새로운숨에 터집니다'에서 슬픔의 역동성이 서서히 준비된다고 한다면 7행에서의 '깃잡을수업는 숨의힘을 움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었습시다'라는 부분에서는 미리 준비되었던 슬픔의 역동성의 분출을 보게 된다. 역동성의 분출은 절망적 체험의 공간에서 희망의 공간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서 의지력으로서의 상상력 즉 역동적 상상력의 정체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상력의 작용에 따라 퍼스나는 현실의 절망차원을 넘어서는 의지력과 행동력을 지니면서 미래의 욕망으로 약동하게 된다. 따라서 그 상상력은 서시를 보다 발전적인 구조로 움직이게 하는 動力으로서 작품에 구조적인 역동성을 부여하는 자주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7행은 6행에 나타나는 '자각의 동기'와 '슬픔의 역동성'의 작용으로 마침내 '사랑의 자각' 단계에 이르게 되는 대목이다. 7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4단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源泉을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것인줄 아는까닭에 ㉢것잡을수없는 숲음의힘을 움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었습시다' ㉦이 이별의 체험 단계라면 ㉧은 사랑의 자각 단계 ㉨은 구체적으로 역동적 상상력의 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공간이며 그 상상력의 작용으로 ㉩의 만남을 욕망하는 단계를 생성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7행의 내용은 <이별의 체험-사랑의 자각-만남의 욕망>으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7행은 퍼스나의 정신구조가 변증법적 지향성을 가지면서 퍼스나의 욕망구조를 변증법적 논리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8행의 의미망은 6행의 의미세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6행에서는 만남과 떠남이 순환적으로 이어지면서 사랑의 의미와 깊이를 보다 공고히 해줄 것이라는 예견을 가능케 해주었지만 그 예견을 신념의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사랑의 자각' 과정을 통하여 '만남과 이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겨울때에 다시맛날것을 믿습시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은 이러한 확신을 보다 강조하면서 님과 나의 합일을 암시하는 시어라 할 수 있다.

9행은 8행의 확신에 찬 믿음을 바탕으로 나의 굳은 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다. 역설은 서로 모순되는 두 차원의 사실들을 병치시켜 그 모순의 관계를 조화 극복함으로써 보다 높은 초월적 진리로 나아가게 한다. 즉 '님은갓습시다'와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습시다'라는 두 사실들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습시다'와 같이 단일한 문장 속에 병치시켜 그 대립적 모순관계를 통일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이러한 역설적 표현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퍼스나가 의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남의 욕망이 강렬한만큼 만남의 의지도 강하게 작용하여 보다 초월적 인식에 도달한다고

10) 曹貞煥, "韓龍雲詩의 逆說 研究," 現代文學研究, 43 (現代文學硏究會,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2), pp. 91~92.

볼 수 있다. 이때 만남의 확신과 의지 아래에서 나오는 ‘아아’라는 감탄사는 9행의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다. 이 ‘아아’는 1행에서의 ‘아아’와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다. 1행의 ‘아아’가 단순한 이별의 슬픔에서 나오는 탄식이라면 9행의 ‘아아’는 어떤 깨달음 뒤에 오는 탄사라 할 수 있다. 그 깨달음은 나의 의지로써 이별의 상황을 만남의 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시의 주체의 욕망흐름이 님과 나의 관계회복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그러나 마지막 10행에 와서도 그 관계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행에서 퍼스나의 의지적 발언을 통하여 퍼스나의 정신구조 속에서는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는 듯하나 그것은 다만 나의 의지에 따른 역설에 의한 회복일 뿐이다. 님과의 만남은 나의 의지의 차원을 넘어 보다 큰 세계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님과의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절규의 몸부림과 부르짖음은 한층 더 격앙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격앙된 정서를 나타내는 말이 ‘제곡조틀못이기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곡조틀못이기는 사랑의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남을 암시한다고 보겠다. 그러기에 ‘사랑의노래’는 완성된 만남을 기원하면서 반복적으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노래에는 서시를 계속 이끌고 온 절규의 어조가 그대로 내포되어 있으면서 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언술로서의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다. 사랑의 노래가 만남의 방법론으로서 반복적으로 불리워짐은 만남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계속 될 것임을 말한다. ‘침묵의 님’은 정신적 대상으로서 영원한 존재인 데 반해 ‘사랑의노래’의 주체인 나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이런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원과 믿음의 바탕 위에 실천적 노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0행의 의미망은 완전한 님과 나의 관계회복 즉 완성된 만남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순환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망의 기능탐색을 통하여 밝혀진 핵심기능들을 텍스트의 배열순서에 맞춰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1행(떠남의 결과)-2행(떠남의 필연성)-3행(떠남의 결과)-4행(떠남의 결과)-5행(사랑의 무지)-6행(이별의 충격과 슬픔)-7행(사랑의 자각)-8행(만남의 확신)-9행(만남의 의지)-10행(만남의 실천적 노력)〉

다음은 플롯의 체계도를 뽑아내기 위한 전단계 작업으로 퍼스나의 인식행위와 시적 논리를 인과성의 흐름 위에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의미망의 연결방식과 구조적인 기능성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4행(이별의 체험)-5~7행(사랑의 자각)-8~10행(만남의 욕망)〉

위에서 제시되는 세 단계에 따라 작품은 변증법적 논리로 발전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반복적으로 순환하게 되는 구조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단계에 따른 변증법적 논리의 전개양상은 이미 7행의 의미기능을 살펴보는 가운데 나타났었다. 따라서 7행은 작품 전체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망의 탐색작업만으로는 플롯의 기능성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에 한계성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의미작용과 상상력의 역동성까지도 해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의미망의 탐색을 통하여 드러난 분석의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플롯의 체계도를 뽑아내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sup>11)</sup>

### 3. 시적 플롯과 미적 변형원리

우리는 의미망의 기능탐색의 결과 드러난 자료를 기능적으로 압축시켜 2차

11) 安成洙, 前掲論文,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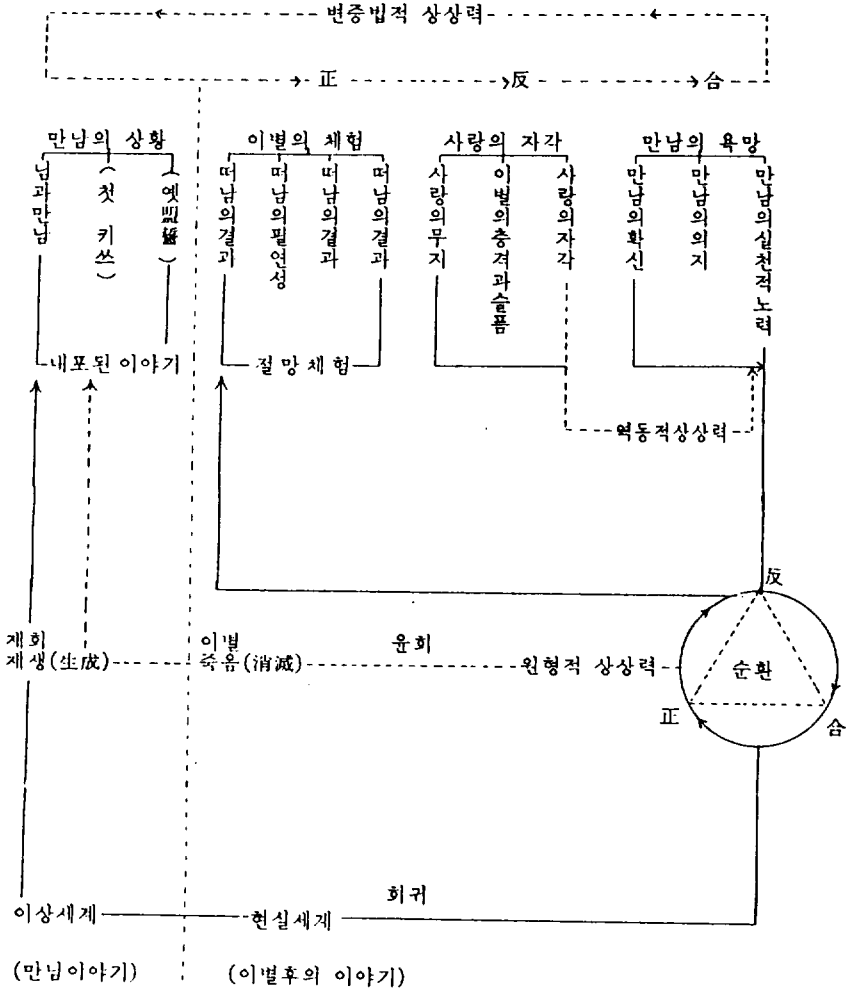
이야기의 질서와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 작자의 숨은 예술적 창작의도(변형 원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작가가 일부러 시간과 공간을 뒤바꾸고 이야기의 배열순서를 변형시킨 모든 기법과 장치들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원리의 탐구를 통해서 작가의 미의식을 확인할 수 있고 플롯의 미적기능과 작용원리가 해명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sup>12)</sup>

압축시킨 2차이야기의 질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플롯의 체계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플롯의 체계도가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은 어떤 문학적 이야기를 미적 통일체로 형상화하는 구조적 기능과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표를 통하여 독자들은 텍스트의 중심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은유적인 그림이 지시하는 서시의 세계는 <만남의 상황→이별의 체형→사랑의 자각→만남의 욕망>의 발전과정에 의해서 형상화된다. <만남의 상황>은 이미 독자들에게 내포된 세계로 주어져 있다. 그러한 증거는 3, 4, 5행의 내용이 만남을 전제로 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사랑하는 님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님이 떠난 상태로 다만 '님의沈黙' 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시의 의미세계는 크게 <만남이야기>와 <이별후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남이야기>는 내포된 의미세계이고 <이별후의 이야기>는 외연된 의미세계이다. 외연된 의미세계는 결국 내포된 의미세계로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별후의 이야기>는 만남의 상황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욕망의 흐름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욕망의 흐름은 퍼스나의 변증법적 지향성의 정신구조에 의해 전개된다. 이러한 퍼스나의 정신구조에 의해 <이별후의 이야기>의 플롯은 변증법적 발전구조를 보여준다. 작품이 처음 상황보다는 결말의 상황이 발전되고 개선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별의 현실'이 正의 과정이라면 '사랑의 자각'을 거쳐 현실의 절망을 뛰어넘으려는 과정은 反의 과정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현실의 차원을 뛰어넘어 새

12) 上揭論文, pp. 4~10.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플롯 체계도>

로운 미래세계를 지향하여 너와 나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의 과정은 변증법적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승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증법적 상상력에 의하여 퍼스나의 욕망의 흐름은 하나의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증법적 상상력의 작용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힘이 역동적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그 역동적 상상력은 퍼스나의 욕망에 불을 붙여 미래의 세계를 지향케 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절망을 뛰어넘어 미래의 희망으로 이행하게 하려는 상승의지, 초극의지는 바로 역동적 상상력의 본질로부터 생성되고 있다. 왜냐하면 역동적 상상력이란 의지력의 꿈인 동시에 퍼스나의 욕망을 미래를 향해 집어 던지게 하는 존재생성의 힘이기 때문이다.<sup>13)</sup>

미적 형상화의 원리는 상상력의 작용 뿐만 아니라 순환성의 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0행의 '사랑의노래'는 '뿔싸고돔니다'로 이루어 보아 계속 반복되어 불리워지는 노래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되면서 서시를 처음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리하여 작품을 다시 읽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서시는 만남의 욕망 단계까지는 갔지만 완성된 만남의 상황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완성된 만남의 상황에 도달하기 위한 퍼스나의 실천적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 실천적 노력에 의하여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너와의 만남을 예견하게 된다. 이러한 예견은 서시가 내포하는 순환의 원리를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다. 서시의 순환성은 반복, 회귀, 윤회의 세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여기서 순환성의 원리란 밤과 낮의 순환, 4계절의 순환, 생성과 소멸, 삶과 죽음 등의 자연적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이다.

우선 반복의 순환원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昇降, 往來, 生成의 운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自然의 秩序이듯이 즐거움은 잠시일 뿐 곧 슬픔에 잠겨야 하고, 조금도 나아진 상태에 이르지 못한 채 되풀이해서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다”<sup>14)</sup> 여기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13) 安成洙, “恨의 맺힘구조와 力動的 想像力 -「招魂」과 「배따라기」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 27輯 (1988. 12.), pp. 27~28.

14) 李光豊, 前掲書, p. 114.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문제를 찾아 방황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서시에서의 퍼스나도 이러한 인간적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별의 체험에서 오는 절망을 극복하여 만남의 희망차원에 머물렀다가도 이내 다시 이별의 현실로 되돌아 오는 퍼스나의 심리구조를 생각해 볼 때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세계로 지향하고자 하는 정신은 다시 되살아난다. 이러한 퍼스나의 정신적 체험의 반복에 의하여 서시 역시 반복적으로 읽히게 된다. 따라서 시의 구조가 마지막 행에 가서는 해결지향의 플롯으로 머무르는가 싶더라도, 다시 반복되어 읽힘으로써 문제제기의 플롯으로 읽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문제해결이 되는가 싶다가도 다시 문제제기의 차원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서시는 圓環의 循環構造<sup>15)</sup>로 전개된다고 하겠다. 즉 고리처럼 처음의 상황이 끝부분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시를 읽을 때 우리는 퍼스나가 님과의 만남 추구과정에서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시행착오는 퍼스나에게 정신적 방황의 체험을 맛보게도 하지만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치열하고 강렬한 노력의 바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님을 발견하기 위한 퍼스나의 실천적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으로 회귀의 순환원리를 들 수 있다. 서시는 과거의 '만남이야기'를 내포하면서 현재의 '이별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미래의 '만남의 욕망'을 詩話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래의 만남욕망은 과거의 만남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뜻도 된다. 이렇게 볼 때 님과의 관계상실의 상황에서는 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며 퍼스나는 다시 과거 님이 실재하던 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별의 상황이 현실세계에서 벌어진다면 만남의 상황은 이상세계에 설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퍼스나는 현실세계를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이상세계에 회귀할 수 있기를 꿈꾼다. 이러한 점에서 퍼스나의 상상력의 발전은 결국 낙원의 회귀와 영원의 회귀로 귀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6)</sup> 낙원

15) 上揭書, pp. 113~123.

16) 金賢子, 詩와 想像力의 構造 (서울:文學과知性社, 1982), p. 126.

의 회복과 영원애의 회귀는 인간의 원형적 심상에서 탐구되어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회의 순환원리를 살펴보자. 윤회사상은 불교의 영혼불멸과 환생의 관념에서 나온다. 이 윤회사상에 입각한다면, 현세의 자아는 죽음에 의하여 종말을 맞이한다기보다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로 변신되고 그 자아는 다시 현세적인 자아로 轉生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죽음의 이미지는 곧 재생의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윤회에 의하면 죽음은 재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죽음과 재생의 모티프는 우리의 원형적 심상에서 원형으로서의 영구성을 지닌다.<sup>17)</sup> 그러므로 죽음과 재생의 모티프를 '이별과 만남'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서시를 원형적 상상력에 의하여 읽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반복, 회귀, 윤회의 속성을 포괄하는 순환원리는 '님'의 해석방법과 긴밀한 상관성을 보여준다. 님을 궁극적인 진리의 상징어로 본다면 순환원리는 진리의 탐구과정에서 겪게되는 반복적 시행착오를 나타내며, 님을 종교철학적인 관점에서 불교적 절대자로 본다면 그것은 윤회의 사상을 나타내며, 역사적인 차원에서 님을 조국이나 민족으로 본다면 그것은 조국광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순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순환성은 서시의 구조를 지탱하게 하는 메타포의 원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4. 주제와 상상력의 세계

플롯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퍼스나의 욕망구조 분석과 작품의 미적 변형논리 분석을 통하여 통하여 드러난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의 상징구조 즉 주제의 세계를 해명하는 데 있다. 작품의 구심점인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에 결정적으

17) 上掲書, p. 170.



로 기여하는 힘은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플롯의 기능 속에 상상력의 작용방식과 상징의 조절기능이 이미 독특한 원리로써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플롯의 기능 속에서 상징이 하나의 구심점이 된다면 상상력은 그 구심점을 향하여 작용하는 구심력을 발휘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구조역학적 차원에서 퍼스나의 지향의식 곧 주제의식을 상상력의 역동적 기능과 관련하여 해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주제의 상징구조 분석을 위한 작업의 세 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님의 沈默'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해명하는 대목에서 '님'의 상징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님'의 상징성이 주제 해명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시의 의미의 기본구조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상력의 작용방식을 주제수렴 작용의 차원에서 해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 1) 제목의 상징성

서시에서는 '님의 沈默'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전개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노래'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님의 沈默'이란 제목이 붙여졌을까? '님의 沈默'은 서시의 표층에서 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층의 의미공간에서 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노래'는 '님의 沈默'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나 '님의 沈默'의 본질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sup>18)</sup> 다만 '님의 沈默'을 휩싸면서 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랑의노래'는 '님의 沈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랑의노래'와 '님의 沈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사랑의노래'는 결코 '님의 沈默'의 존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님의 沈默'이라는 제목의 상징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노래'의 대상은 '님'이라고 할 수 있다. '님'은 서시에서 想像力의

18) 윤호병, 前揭書, p. 105.

求心點<sup>19)</sup>으로 그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님'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그것은 작품의 상부구조에서 살필 수 있는 심층적 의미와 작품의 하부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표층적 의미의 두 층위로 대별된다. 심층적 의미로서의 '님'은 궁극적(절대적, 근원적)인 진리, 절대적 사랑, 님과 나의 관계를 통한 절대경지, 眞如, 道 등의 정신적 대상으로서의 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심층적 의미들이 각 하부구조의 스펙트럼에 따라 연인, 조국, 민족, 절대자 등의 표층적 의미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님'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침묵'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서시에서 '침묵'과 대조되는 시어를 찾으려면 '노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노래는 언어적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言述行爲라 할 수 있다. 이 노래는 '님의沈黙'의 存在次元을 언어의 기능에 의하여 意味次元으로 代置하려 한다. 그러나 존재차원과 의미차원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논리적 거리(logical distance)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對象과 言語는 결국 같을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언어의 철학적 한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언어의 한계성은 결국 '사랑의노래'에 '님의沈黙'의 본질을 밝혀주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님'을 종교나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超越의 存在라 생각할 경우에 이러한 존재들은 우리가 五官을 통하여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예를 들면 神, 絕對精神, 道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초월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陳述의 眞僞를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것이 되고, 인식적 언어에 의해 쉽게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존재들은 스스로 나타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언어의 한계성과 신비적인 대상의 속성으로 인하여 '님'은 결국 '침묵'의 상태에서 스스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님의沈黙'에서 '침묵'이라는 말은 님의 존재차원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해주

19) 金載弘, 前掲書, p. 73.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님의沈黙'을 '침묵의 님'으로 바꾸어 보면 '침묵하는 님'이란 말이 된다. '침묵하는 님'은 어떤 인식적 언어에 의해 쉽게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나타나 보이는 '정신적 대상으로서의 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대상으로서의 님'은 끊임없는 기원과 믿음, 기다림의 대상이 되면서 서시의 구조를 순환적으로 이끄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시의 제목 '님의沈黙'은 '정신적 대상으로서의 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의 상징성은 서시의 주제의식 해명의 한 차원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서시의 주제의식은 이별과 만남의 관계를 조명해 볼 때 또한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님의 떠남 이후 퍼스나는 내면적 성찰의 계기를 맞이하면서 '사랑의 자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한 자각의 과정을 거쳐 이별의 상황을 만남의 상황으로까지 끌어 올린다. '사랑의 자각' 이전의 '이별의 체험'은 단순한 절망의 체험이요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일 뿐이었다. 이때 이별과 만남은 서로 대립, 모순의 관계에 그친다고 보겠다. 그러나 '사랑의 자각' 이후 '이별의 체험'은 만남으로 열린 상승의 길을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시련의 체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 시련의 체험은 만남의 공간으로의 도약을 예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시의 의미망의 연쇄구조가 <이별의 체험-사랑의 자각-만남의 욕망>으로 압축된다고 볼 때, 이러한 의미론적 발전과정은 퍼스나의 정신구조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구조에 의해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한 단계이며<sup>20)</sup> 만남의 한 방법론<sup>21)</sup>이라는 초월적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창조해

20) 金賢子, 前掲書, p. 159.

21) 金載弘, "萬海 韓龍雲," 韓國現代詩人研究 (서울: 一志社, 1986), p. 10.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퍼스나의 변증법적 정신구조에 의해 이별과 만남의 대립적 相反關係는 오히려 相成의 계기로 작용하게 됨을 말한다. 마침내 이별과 만남의 대립과 모순관계는 상호 변증법적 지양을 통하여 의미론적으로 통합하게 된다. 결국 이별과 만남의 대립관계는 작품의 의미론적 운동(변화,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서시의 의미구조에 구조적인 역동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별과 만남에 대한 인식의 체험은 '남'이라는 정신적 대상의 추구 과정에서 승고한 정신적 체험으로 드러나게 된다. '사랑의 자각' 이전의 이별의 상황은 퍼스나에게 비장감을 맛보게 하지만 그 이후의 퍼스나는 자기의 한계상황을 뛰어넘어 인간존재 자체의 깊이에서 울리는 음성을 승고미의 가치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원적인 가치추구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적 가치는 승고미라 할 수 있다.

### 3) 상상력의 작용원리

· 주제의 형상화 과정과 수렴작용을 보다 명백한 논리로 해명하기 위해서 문학적 이미지의 작용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상상력의 작용원리를 검토하는 것도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sup>22)</sup>

가스통 바슐라르는 세 가지의 상상력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 이른바 물질적 상상력, 역동적 상상력, 원형적 상상력이 그것이다.<sup>23)</sup> '物質的 想像力은 대상의 내부로 들어가서 그 실체를 파악하게 하는 힘이다. 이는 상상력과 대상의 물질성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이미지의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sup>24)</sup> 따라서 물질적 상상력이 창조해내는 기본적 상상형태는 이미 플롯 분석의 의미망의 기능탐색 과정에서 그 기능 분석의 원리로 활용되었다.

22)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研究 試驗," 前掲論文, p. 31.

23) 郭光秀·김현, 바슐라르 研究 (서울: 민음사, 1976), pp. 23~40.

24) 上掲書, pp. 29~32.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위 물질적 상상력 속에는 '스스로를 확립시키는 힘-욕망으로서의 상상력을 감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力動的 想像力으로서 초월적인 세계, 새로움의 경험 그 자체를 창조하는 존재생성의 힘이다.'<sup>25)</sup> 서시에서는 이 상상력의 작용에 힘입어 단순한 절망차원을 뛰어넘어 희망의 차원으로 도약, 상승하게 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자각, 발견의 기회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다. 또한 작품 자체의 질서에 구조적 역동성이 가담하게 되면서 어떤 이미지나 정신구조의 발전과정에서 비약적이고 초월적인 창조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작품의 의미세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상상력은 똑같은 목적을 지향하며 인류전체의 모든 상상력들은 하나의 궁극성을 가짐으로써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原型的 想像力의 작용이다. 이점에서 여러 상상력들은 궁극적으로 원형적 상상력을 지향하는 일정한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이때 원형은 時空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 이미지, 원초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sup>26)</sup> 서시에서의 이별과 만남은 원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죽음과 재생,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퍼스나의 상상력의 발전이 결국 낙원의 회복과 영원에의 회귀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품 분석의 결과 모든 시적 이미지들이 원형적 이미지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형적 상상력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상상력의 힘과 작용외에도 문학적 의미의 세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또 하나의 상상력의 정체가 이른바 辨證法的 想像力이다. 이는 어떤 이미지나 정신구조의 발전과정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차원에서 바람직한 차원으로 이끄는 창조적인 변화생성의 힘을 가리킨다.'<sup>27)</sup> 서시에서 퍼스나의 인식행위와 욕망의 흐름은 이러한 변증법적 상상력의 발산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이 상상력은 이별과 만남으로 대표

25) 上揭書, pp. 33~37.

26) 上揭書, pp. 37~39.

27)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研究 試論," 前揭論文, pp. 155~156.

되는 작품의 대립상황을 변증법적 지양을 통하여 의미론적으로 통합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구조로 나아가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변증법적 상상력을 통하여 퍼스나의 욕망구조가 고조되면서 욕망추구 행위의 역동성이 분출되고, 그러한 역동성을 내포한 역동적 상상력이 퍼스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원형적 상상력의 세계로 지향하게 하면서 순환적 욕망추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순환적 욕망추구의 모습이 바로 구도정신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님의 沈默>의 작품세계를 구조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 시의 구조적 특성은 다음의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시의 욕망구조는 '님과 나의 관계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세계에서는 완전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의 욕망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퍼스나는 이러한 미래의 욕망 달성을 위한 끊임없는 실천적 노력을 욕망행위의 순환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2) 서시의 플롯 체계는 <이별의 체험-사랑의 자각-만남의 욕망>의 삼단계에 따른 변증법적 발전구조를 보여준다. 퍼스나의 욕망이 변증법적 발전을 진행하는 동안 역동적 상상력이 분출되고, 그로 인해 상상력은 역동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상상력의 작용원리 외에 플롯에 가담하는 주요한 미학적 변형원리는 욕망추구의 순환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순환성에 의해 플롯의 체계는 다양한 의미와 상승구조를 내포하게 된다.

3) 주제의 형상화를 돕는 상상력은 변증법적 상상력이다. 그 작용과정에서 역동적 상상력이 분출되어 퍼스나의 욕망이 근원적인 진리의 세계를 욕망하고 투사하는 과정 중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별과 만남의 변증법

4) 서시에서 이별과 만남은 퍼스나의 정신구조 속에서 변증법적 갈등과 지양을 통하여 통합적인 의미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때 이별과 만남은 보다 초월적인 진리 즉 사랑의 원리를 획득하기 위한 삶의 필연적 단계들로 설명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韓龍雲. 님의 沈默. 再版. 서울: 漢城圖書株式會社, 1934.
- 郭光秀·김현. 바슐라르 研究. 서울: 民音社, 1976.
- 김은자. 現代詩의 空間과 構造. 서울: 문학과비평사, 1988.
- 金載弘. 韓國現代詩人 研究. 서울: 一志社, 1986.
- \_\_\_\_\_. 韓龍雲文學 研究. 서울: 一志社, 1982.
- 金賢子. 詩와 想像力의 構造. 서울: 文學과知性社, 1982.
- 朴異汶. 詩와 科學. 서울: 一潮閣, 1975.
- 安成洙.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 研究 試論.” 文學博士學位論文, 中央大  
學校, 1989. 6.
- 尹在根. 萬海詩 「님의 沈默」 研究. 서울: 民族文化社, 1985.
- 李光豐. 現代小說의 原型的 研究. 서울: 集文堂, 1985.
- 이승훈 著. 한국문학과 구조주의. 서울: 문학과비평사, 1988.